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우리는 '절대성 자리'를 갖고 있다

철야정진법문 ⑧

여러분 늙지 말라면 그것이 안 늙던가요? 여기 저 뭣이고 나 부회(화)나서 말이죠. 나 이발 자주 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이래 서거든요. 이래 서요. 그래서 자주 해야 돼. 귀찮아서. 이거 빌어먹을 놈의 머리, 내 소유물 같으면 말이지 이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말 안 듣거든. 하하하. 내 말 안 들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뚱어리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 되긴 돼. 어떨 때는 그대로 흉내는 내요. 흉내낼 수 있지만은 참말로 여러분의 몸뚱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뭣고? 여러분들 지니고 있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만도 좌우간 요번 철야정진 때 내 목적이 이걸 갖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 드리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이거 재미도 없을 겁니다. 자꾸 잔소리 같아서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도 재미없어도 나는 억지로 이걸 할 작정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의 몸뚱이는 여러분의 관리물은 돼. 관리는 하고 있어. 옷도 입혀 주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여 주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소유물은 아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뭣고? 마음이지. 마음이라 해도 좋아요. 성품이라 해도 좋아요. 절대성이라 해도 좋아요. 도대체 그러면 마음 좋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노 말이지.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노 말이여. 있긴 있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리고 찾을라면 못 찾아. 여러분의 마음 찾아본 일 있습니까? 그러하니 있긴 있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선사들, 어른들이 말씀을 하기를 유무, 있고 없는 것을 뛰어넘은 자리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허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잘 나고 못난 것, 똑똑하고 똑똑치 못한 것. 이건 업연 관곕니다. 업연도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건 다른 날, 내일 쯤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하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은 벌써 말이 틀려버려. 내 말을 들을 줄 알아. 내 얼굴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 그거 없는가요? 틀림없이 있어. 있다 하면 찾아내지 못해. 허공과 한가지라. 큰 건가 적은 건가? 생각해 봅시다. 큰 건가 적은 건가?

우리가 가까운 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러분 은하수 보죠? 벌써 여러분들은 은하수를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 다른 건 여러분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모습에만 주저앉은 분들은 꼭 모습만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허공 볼 줄 모르거든. 그러나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 인자부터 여러분이 허공을 볼 줄 알 겁니다. 크다면 무한히 큰 겁니다. 크다면 온 누리를 덮은 겁니다. 참말로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인가요? 하하하. 이거 과학적입니다. 작다 이래 하면 말이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말이죠. 바늘귀라도 꿰.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크다 하면 온 누리를 덮고 있어. 작다 하면 바늘귀도 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자리는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어. 누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닙니다. 시작이 없어.

>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노?
> 있긴 있는데
>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
> 마음은 있고 없는 자리를
> 뛰어 넘은 자리다"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 없어요. 그 자리, 그 절대성 자리. 그 마음자리. 시작이 없으니 끝이 없거든요. 이거 빤한 것 아니에요? 이것쯤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겁니다. 몸은 시작이 있어. 끝이 있어. 생사, 이것이 실다운 거든지 실답지 않든지 그건 별문제로 하고 시작이 없어. 생사,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러나 이 절대성자리, 이 몸을 맘대로 끌고 다니는 이 자리, 공부도 할라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있는 이 자리, 시작이 없습니다. 그걸 다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실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 도리 모르면 원통합니다. 원통해. 나 이런 말 했습니다. 꼭 그리 하고 싶어요. 이것 전부 내 같으면은 이건 죽는 것이거든요. 모습이니까. 시작이 있어.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주셨어. 그러면 시작이 있다 말이여. 그러면 끝이 있을 거라 말이여. 나중에 화장터로 가나 묘를 쓰나 있단 말이여. 그런데 사실로 이 몸뚱이가 나 같으면 나 자살하겠어요. 그 뭐하려고 괴롭게 더욱 지금 머리가 허얘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거 귀찮지 않아요? 죽는 건 뭣이냐. 죽으면 모른다 이리 되는데 참말로 모를 수만 있다면은 참 좋겠어요. 나는 아는 걸 택하지 않겠어요. 모른 걸 택하겠어요. 천지가 뭉개지든지 나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알 필요 뭐 있어요? 내 하나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편한 것도 없이 모른다 말이죠.

이 몸뚱어리는 원래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소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배를 인연 삼아서 우리 몸뚱어리 나온 것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말이죠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뭣을 죽는다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김진옥 선생 딸 말해 봐라. 죽는 것 있겠나? 프랑스까지 갔다 오면서. 하하하. 죽는 것 없지? 죽는 것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없어요 하는 그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 그렇다고 있을래야 있을 것도 없어. 우리는 도둑놈이 몇 천 명 와서 가져 갈래야 그건 못 가져가요. 참 우리는 절대의 자리를 우리는 간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이것만이 아이고 내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다 내 얼마 없으면 죽는다. 아, 그거야 그렇지. 이건 모습이니까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확고한 신념' 중도에 드는 선행조건

4-7 귀경례

물론 부처님 외에 많은 대종사(大宗師), 큰 스님네와 큰 보살(菩薩)들 즉, 마명보살(馬鳴菩薩) · 용수보살(龍樹菩薩) · 무착보살(無着菩薩) · 세친보살(世親菩薩) 또는 달마대사(達磨大師) · 천태대사(天台大師) 등 위대한 스님네들이 많이 나시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또 인도나 중국에서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대성자(大聖者)들이 많이 나셨지만 그 성자들 가운데 원효보살은 가장 뛰어나시고 어느 불 보다도 부처님의 전체적 부분을 종횡무진으로 남김없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탁월한 체득을 하셨다. 그러므로 8백년 전에 우리들의 대선배인 고려 대각국사(大覺國師) 같은 어른이 이미 해동교주 원효보살(海東教主 元曉菩薩)하고 보살 칭호를 바쳤던 것이어서 우리들도 지금 그분 말씀을 따라 이렇게 원효보살 하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 원효보살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니르바나를 잘 아신 분이고 또 이를 잘 실천 궁행하신 분이다. 다시 원효보살 자신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만일에 사람이 이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는 것, 우주의 공정성(公正性)을 잘 알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크나큰 신근(信根)을 일으켜야만 된다.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신근의 양상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알뜰한 데 있다. 알뜰한 믿음은 애써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신(信)을 닦아서 얻었을 때 이에는 무궁한 공덕(功德)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셨다.

신리(信理)는 실유(實有)하다. '믿음의 원리는 무엇보담도 알뜰한 데 있다' 하는 것은 신의 체(體)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신(信)은 일체법(一切法)을 가히 얻을 수가 있다. 또 신은 알뜰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신은 애쓰고 노력하면 얻어진다 하는 것은 신의 상(相)을 설명하신 것이다. 신이 이러한 체와 상을 갖추면, 또 이는 중생에게 많은 이익을 끼친다 하는 것은 신의 용(用)을 말한 것이다.

즉 신리실유 신수가득 신수득시 유무량공덕(信理實有 信修可得 信修得時 有無量功德)이라고 한 것이 이런 뜻이다. 해동교주 원효보살께서는 이렇듯 신의 체 · 상 · 용에 걸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인 대사회성을 위하여는 이를 어떻게 건설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두 가지 극단을 여의어야 하고, 내노라 하는 아집(我執)과 내가 아는 이데올로기, 법집(法執) 따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러한 해탈(解脫)을 얻는데는 중도(中道)의 지경에 들어가야 한다. 중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본체인 열반(涅槃), 니르바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정확히 아는데는 확고 부동한 신념이 선행조건이다. 그 확고부동한 신념은 알뜰한 것이어야 하고, 알뜰한 신념은 노력하면 가히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하여 가히 얻어진 신념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였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얼마나 간곡하고 꿰뚫어진 설명일까 보냐. 원효보살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자신께서도 이렇듯이 실천 궁행하셨다.

> "진리를 의심하게 되면
> 발심에 장애가 되고
> 망설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
> 문(門)을 의심하면
> 수행에 장애가 되어
> 갈팡질팡하게 된다"

두 가지 극단을 여의어야 한다는데는 또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다. 믿음에 반대되는 의혹(疑惑)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의심나는 일은 밝히어 끝내는 아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 의심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런데 공리(公理)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진리 자체를 의심하게 되면 발심(發心)에 장애가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만다. 의혹의 철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데카르트도 밝히어진 진리, 수학의 원리인 공리(公理)같은 것을 의심한다면 과학적 연구에 진전을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과학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의혹을 지성(知性)의 무기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학문에 들어간 이상 그러한 부질없는 망설임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원효보살의 말씀은 이를 명확히 지적해 놓으신 탁월한 견해이시다.

둘째, 문(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문을 의심하면 수행에 장애가 되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된다. 문이란 진리에 이르도록 부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론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길이므로 안심하고 믿어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 믿고 수행을 해 나가므로서, 그 도상에서 한 가지씩 결정을 보고 매듭을 지어 나가게 된다.

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이한다면 가령 대승(大乘)이라는 진리를 의심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나라고 본다면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다시 진리를 많은 것이라고 한다면 대승의 진리도 하나로서 완전한 진리는 아닐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문제로 중생의 구제에 이론(異論)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제하고 교화한 중생은 한 사람이냐, 많은 종류의 인간들이냐? 하나이냐 여러 가지냐? 많은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분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느냐? 동체의식(同體意識)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자대비로 보아 중생과 나와 똑 같다고 하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의 살이 떨어질 경우에 모든 중생의 살이 떨어지고 모든 중생이 악도(惡途)에 걸리어 신음할 때 과연 나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되느냐? 이런 의심을 위한 의심이 자꾸만 생겨난다. 이렇듯이 의심한 경우에는 그만「아이쿠, 이러니 저러니 복잡한 생각할 필요 있나!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내버리고 말지」하고, 드디어는 방일(放逸) · 태만(怠慢)해져 버린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 산 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 화 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